

베스유니트형 욕실의 사용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sing behavior of unit bathroom

성 정 원* 이 선 옥** 안 옥 희***
Sung, jung-won · Lee, sun-ok · An, ok-hee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actual usefulness of bathrooms in individuals living in apartment. We performed a randomized matched questionnaire study involving 487 individuals who use a unit-bathroom and live in apartment in Taegu and it's rural cities for the period from May to June, 2000.

Most of the individuals used bathroom for washing behavior of daily living, such as, washing hands, feet, face, and hair, except bathing. Almost all the individuals reported some complaints about the height and size of wash-stand when they wash face or hair. And most of the individuals does not use the bath-tube when they shower or bathe.

I. 서론

현재 주택 내에 있는 욕실공간은 욕조, 세면대, 변기 등이 한 공간 안에 집약되어 있는 형태가 많다. 이러한 형태는 1962년 마포 아파트 건설시 처음으로 도입된 후 아파트 건설의 증가와 함께 널리 보급되어 현재 우리나라 주택 욕실의 보편적인 형태가 되어 있다(이영심, 1996). 그러나 이와 같은 욕실공간은 우리의 목욕행태와 맞지 않아 불편함을 주고 있다(박혜선, 1986; 정경숙, 1987; 신경주, 1989).

이에 본 연구는 거주자들의 욕실사용실태를 조사하여 거주자의 입욕행태에 맞는 편리하고 쾌적한 욕실공간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동일한 공간의 사용에 있어 그 특성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어 베스유니트형(bath unit) 욕실 하나를 가진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부분욕(세면, 세발, 발씻기)과 전체욕(샤워, 목욕)을 중심으로 욕실사용실태를 분석하기로 한다. 특히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도구

설문지법에 의해 조사하였으며 설문지는 선행연구(정경숙, 1987; 신경주, 1989; 임희경, 1995; 이영심, 1996)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설문내용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분욕과 전체욕의 욕실사용실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베스유니트형(bath unit) 욕실 1

* 정희원,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정희원, 영남대학교 강사, 공학박사
*** 정희원, 영남대학교 생활과학부 부교수, 학술박사

개를 가진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자이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중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성별은 남성이 47.0%, 여성이 53.0%이며 연령은 10대가 22.2%, 20대가 26.1%, 30대가 23.6%, 40대 이상이 28.1%이다.

아파트의 평수는 10~19평이 9.1%, 20~29평이 47.1%, 30평 이상이 43.8%로 나타났으며 평균 27.34평이다.

조사기간은 2000년 5월~6월이며 설문지는 520부를 배부하여 500부를 회수하였으며 487부를 최종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3. 자료처리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포함한 전 문항에 대하여 빈도, 백분율 및 평균을 알아보고, 집단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pc⁺ 7.5 program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분석

1. 부분옥의 욕실공간 사용

부분옥은 세면, 세발(머리감기), 발씻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세면, 세발, 발씻기 모두 욕실에서 하는 경우가 91.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분옥은 대부분 욕실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세면

세면행위는 94.5%가 욕실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세면 횟수는 2회가 66.2%로 많아 아침과 저녁에 세면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면방법은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 베스유니트형임에도 불구하고 세숫대야 이용이 30.4%로 나타났다.

세면대를 사용하는 경우, 세면대높이에 대한 불만이 7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장이 다른 가족원들이 같은 높이의 세면대를 사용

하므로 불편함이 야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세면행위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세면방법은 남, 녀 모두 세면대 이용이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세숫대야 이용이 많았다($p<.001$). 그리고 세면대 높이는 어른은 적당하고 어린이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여성의 불만이 더 높았다($p<.01$)

또한 연령차이는 세면횟수($p<.001$)와 세면대 높이($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세면횟수는 모든 연령대가 1일 2회가 가장 많았으나 특히 30대의 비율이 높고 10대의 비율이 낮았다. 그리고 세면대높이는 어른에게는 적당하고 어린이에게는 불편하다는 비율이 많았으며, 특히 30대와 4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2) 세발

세발행위는 95.9%가 욕실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발장소는 욕조 밖이 73.4%, 욕조 안이 26.6%로 욕조 밖에서 세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발방법은 샤워기 이용(55.2%)→세숫대야 이용(32.2%)→세면대 이용(12.2%)→기타(0.4%) 순으로 나타났다. 세면행위가 세면대를 많이 이용하는데 반해 세발행위는 샤워기를 많이 이용했다. 특히 후술하는 발씻기 행위보다 세면대 이용률이 낮아, 세발시에는 세면대를 사용하기가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면대 세발시 불편한 점으로는 '샤워 등의 보조가 필요하다'와 '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세면대에 대한 불만은 특히 높이와 크기에 대한 불만이 높아 개선책이 요구되는데, 크기는 보다 크게 조절되어야 하며 높이는 전 가족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높이조절장치가 요구된다.

세발 횟수는 봄/가을, 여름에는 1일 1회가 많았고 겨울에는 1일 1회와 2일에 1회가 많았다.

세발행위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세발방법에서 남성은 샤워기 이용이 많은 반면, 여성은 세숫대야이용이 많았다($p<.001$).

세발횟수는 봄/가을($p<.001$)에는 남성이 1일 1회, 여성이 2일 1회가 많아, 남성이 여성보다 머리를 더 자주 감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름($p<.001$)에는 남성이 2일 1회, 여성이 1일 1회가 많아, 여성이 더 자주 감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차이는 욕실에서 실시($p<.01$), 봄/가을 세발횟수($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모든 연령이 세발을 욕실에서 하나 특히 10대의 경우 99.1%가 욕실에서 세발을 하고 있어 가장 두드러졌으며, 봄/가을 세발횟수는 모든 연령대에 있어 1일 1회가 가장 많았다.

3) 발씻기

발씻기 행위는 95.2%가 욕실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씻기 방법은 세숫대야 이용(43.5%)→샤워기 이용(40.3%)→세면대 이용(15.5%)→기타(0.6%)의 순으로 나타나, 부분욕 중에서 세숫대야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발씻는 횟수는 세면과 같이 하루 2회가 가장 많았다.

발씻기 행위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발씻기 방법에 있어 남성은 샤워기 이용을, 여성은 세숫대야 이용이 많았다($p<0.1$).

연령차이는 모든 연령대가 욕실에서 발씻기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40대 이상의 경우 98.5%의 비율을 보여 가장 높았다($p<.01$).

2. 전체욕의 욕실공간 사용

전체욕은 샤워, 목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샤워, 목욕 모두 욕실에서 한다가 63.7%로 높았으나 부분욕보다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1) 샤워

샤워행위는 94.0%가 욕실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워방법은 비누질(49.9%)과 몸 행구기(52.4%) 모두 욕조 밖에서 하는 비율이 높아 욕조 사용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샤워횟수는 1일 1회이 41.1%로 많았으며, 샤워시간은 계절에 상관없이 15분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샤워는 짧은 시간 내에 마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샤워행위에 대한 성별차이를 보면, 비누질 방법에 있어 남성은 욕조 안(46.5%)과 욕조 밖(46.9%)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은 욕조 밖(58.7%)이 높게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욕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몸 행구는 방법도 비누질 방법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p<.01$).

봄/가을 샤워시간($p<.001$), 여름 샤워시간($p<.01$)과 겨울 샤워시간($P<.001$) 모두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계절 모두 여성의 샤워시간이 더 길었다.

연령차이를 보면, 샤워횟수는 40대 이상이 샤워를 가장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대가 샤워를 가장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봄/가을 샤워시간($p<.05$)과 여름 샤워시간($p<.01$)에서 20대 이하의 샤워시간이 30대 이상에 비해 가장 길었다.

2) 목욕

목욕은 65.3%가 욕실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욕과 전체욕의 행위 중 욕실에서 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목욕장소는 봄/가을, 겨울은 대중목욕탕 이용(75.4%, 89.2%)이 많고 여름은 욕실(50.2%)에서 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목욕행위는 주택의 욕실보다는 대중목욕탕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주택욕실의 용도에 대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목욕방법으로 몸 담그는 곳은 욕조가

76.6%로 가장 높았으나, 비누질, 때밀기, 몸 행구기는 욕조 밖에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욕조 사용률이 낮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사용빈도가 낮은 욕조가 욕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목욕횟수에서 봄/가을은 1주일에 2~3회가 50.0%로 가장 높았고, 여름은 매일과 1주일에 2~3회가 높게 나타났으며, 겨울은 1주일에 2~3회와 한달에 1~2회가 높게 나타나 샤워에 비해 횟수가 잦지 않았다.

목욕시간도 봄/가을은 1시간 이하(46.9%)와 2시간 이하(42.9%), 겨울은 2시간 이하(50.4%)가 많았으나 여름은 1시간 이하(63.4%)가 많았다. 다른 계절의 목욕시간에 비해 짧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 부분욕과 샤워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목욕행위에 대하여 성별차이를 보면, 욕실에서 목욕하는 비율이 여성(72.1%)이 남성(57.5%)보다 높았다($p<.001$). 여름 목욕장소는 남성은 집(욕실)이 많았고, 여성(45.1%)은 집+대중목욕탕이 많았다($p<.001$).

그리고 여름 목욕횟수($p<.001$)와 겨울 목욕횟수($p<.05$)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자주 목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시간은 계절에 상관없이 여성이 더 오래 목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봄/가을 목욕시간($p<.001$)과 겨울 목욕시간($p<.001$)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차이를 보면, 젊은 층이 욕실에서 목욕을 많이 하고, 40대 이상이 대중목욕탕을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다($p<.05$).

봄/가을 목욕장소($p<.001$)와 겨울 목욕장소($p<.001$)는 모든 연령에서 대중목욕탕 이용이 많은데, 특히 40대 이상이 대중목욕탕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목욕방법 중 몸 담그는 곳($p<.01$)은 모든 연령에서 욕조에 담근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40대 이상이(85.8%)로 가장 많았고 때밀기

($p<.01$)는 모든 연령이 욕조 밖에서 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20대(30.8%)는 욕조 안에서 때밀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횟수는 10대와 30대, 40대 이상은 1주일에 1~2회가 절반을 넘는 비율이었으나 20대는 한달에 1~2회와 비슷한 비율이었다($p<.01$).

여름 목욕시간($P<.01$)은 모든 연령에서 1시간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40대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거주자의 입욕행태에 맞는 욕실공간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베스유니트형(bath unit) 욕실을 가진 아파트 거주자 487명을 대상으로 부분욕(세면, 세발, 발씻기)과 전체욕(샤워, 목욕)의 욕실 사용실태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면행위는 대부분 욕실에서 하고 있었으며 세면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숫대야를 이용하는 경우가 30.4%나 되었으며, 세면대높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 세발행위는 대부분 욕실에서 하고 있었으며 샤워기 이용이 많고 세면대 이용이 적었으며, 또 세면대의 크기와 높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3. 발씻기행위는 대부분 욕실에서 하고 있었으며 세숫대야와 샤워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4. 샤워행위는 대부분 욕실에서 하고 있었으나 샤워시 욕조 사용비율이 낮았다.
5. 목욕행위는 다른 행위에 비해 욕실에서 하는 빈도가 낮았으며 몸을 담그는 이외의 행위, 즉 비누질, 때밀기, 몸 행구기는 욕조 밖에서 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세면대, 욕조, 변기가

한 공간안에 집약되어 있는 베스유니트형 욕실은 우리의 입욕행태와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세면대 높이와 크기, 적정 욕조규격을 통한 개선이나 우리의 입욕행태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욕실디자인의 개발이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1. 박혜선, 아파트 서비스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2. 윤정숙 외, 욕실공간 계획을 위한 감성공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3호, 1997
3. 이영심, 거주자가 요구하는 아파트의 욕실,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4. 任喜敬, 韓國都市集合住宅の住様式および住空間に関する研究 -近年における住 様式の動向と住空間の住様式的討-,
5. 정경숙, 아파트 욕실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욕실의 사용실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6. 신경주 외, 한국인 입욕법 측면에서 본 아파트 욕실공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제 7집, 1989